

### 이몸 끌고다니는 물건 찾아 ①

###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본사 사장상)

어려서부터 얼굴과 몸에 피부색이 없어져 흰색반점으로 남은 백반증을 앓았던 나는 사춘기가 되면서 타인을 더욱 의식하며 수치심으로 심한 열등감과 괴로움이 났었다. 백반증만 완치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늘 하곤 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할도 많이 맞았고 바르는 약, 먹는 약등 갖가지 치료를 다 해보았다.

그러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치료도 거의 포기했다. 그러던 중에 군대에 지원하여 군복무를 시작했다. 내가 군무를 시작한 곳은 어느 해인가 초소였다. 백반증은 차와선을 피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던터라 바닷가 해안초소에서 시간만 내면 바닷물에 몸을 담그며 햇빛을 받다가 일정시간 쉰었다.

군복무중에도 원래 성격이 완만하지 못했던 나는 상관들이 무엇을 시키면 순종하지 않기가 일쑤였고 몸의 병 또한 완치되지않아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얼굴에 나타나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초소의 분대장에게 대들었다가 주먹으로 얻어맞아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들기까지 했다. 얻어맞는데 대한 분함을 이기지 못해 총을 난사하고 같이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실탄을 장전했지만 매스컴에 보도될 끔찍한 장면이 생생하게 연상되고 두려움이 앞서 마음을 진정시켰다. 괴로운만 주고 낯지 않는 고질적인 백반증과 상사와의 갈등은 나를 더이상 버티기 힘들게 만들었다. 숨이 이렇게 괴롭다면 더이상 살아가 이유가 없는듯 했다.

그렇게 의미없고 힘겨운 하루하루가 계속됐고 논산훈련소에서 전반기와 후반기 교육을 합하여 두어달 정도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 전반기교육에서는 법당이 없어 교회에가서 예배를 보았다. 종교에 관심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고 일요일 내무반에 남아있으면 사역을 시키고 담당하니까 교회에 갔던 것이다. 예배도 중 목사의 말씀에 부모님과 고향 생각이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내무반에 돌아와서는 동료들 얼굴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다. <보람상매본>을 토론하는 방법으로 가르쳤다. 휴식시간에는 <군법요집>을 빌려와 맞추려 반복해서 읽었다. 필경도, 심이인연법, 사성제등 생소한 용어를 익히고 그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읽는 길밖에 없었다. 후반기 교육때에는 군교육에 필요한 읽기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군교육은 소홀히 한채 법요집 공부에만 열을 올렸다. 불교를

### 고질적인 백반증·상사와의 갈등으로 괴로운 나날 보내다 군법당을 찾았다

후반기 교육기간이 시작될 무렵 법당이 생겼다. 군에 오기전에는 짙어 놀러나 가보았지만 공부할 위해 근본적인 없었다. 교회는 어렸을 때 마을 친구들과 과자나 선물을 준다고해서 여러번 가본적이 있다. 맛있는 과자와 즐거운 게임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준다는 가르침에 집 뒤편의 장독대에서 조용히 무릎꿇고 기도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할악적인 종교라는 불교에 대한 특별한 호감을 갖게 됐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법당을 찾았다.

처음 찾아가 법당은 군종방이 없었다. 원공대를 다니다 입대한 사병이 지도를 해주었

공부하는 것이 세월이 지나더라도 이득이될 것 같은 생각에서였다.

여러가지 훈련에 필요한 수칙들을 외우지않아 매일 기합을 받으면서도 불교경전을 빌려다 열심히 읽었다. 마지막 법회때 그동안 공부한 <보람상매본> 뜻을 적는 시험을 보았다. 나는 보람상매본의 내용중 '몸에 병있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니라. 그래서 상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써 양악을 삼으라 하셨나니라'와 '세상살이에 곤란없기를 바라지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



그림 · 이준석

래서 상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나니라'에 대한 뜻을 잘 적었고, 그에 대한 상등으로 육군법요집을 받았다.

박민수 (광주광역시지시신문 배재학원)

RATANASUTTA  
\*Tanna (파인란드어) 상모, 보석

◆ Whatever spirits have come together here, either belonging to the earth or living in the air, let all spirits be happy, and then listen attentively to what is said.  
여기 모인 귀신들은 지상의 것이건 공중에 있는 것이건 모두 기뻐하라. 그리고 주의하여 이 말을 들으라.

◆ Therefore, O spirits, do ye all pay attention, show kindness to the human race who both day and night bring their offerings; protect them strenuously.  
귀신들이여, 너희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라. 힘겨워하는 그들을 돌보라.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⑧

◆ Whatever wealth there be here or in the other world, or whatever excellent jewel in the heavens, it is certainly not equal to Tathagata. This excellent jewel is found in Buddha, by this truth may there be salvation.  
이 세상과 내세의 그 어떤 부(富)라 할지라도, 천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라 할지라도, 여래(如來)에게 견줄 만한 것은 없다. 이 훌륭한 보배는 깨달은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사람은 구제하라.

\*attentive (ad) 주의하여, 진찰하게 \*ye 너희들(you의 복수형)  
\*offering (n) (신에게의) 재물을 바치는 것  
\*strenuously (ad) 노력할 필요로 하는, 힘은  
\*the other world 내세(冥界) \*jewel (n) 소중한 사람(물건), 보배  
\*Tathagata (파인란드어) 여래(如來), 여가(如法), 진인(真人)

오종욱 기자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 BBS 불교부산방송 개국 2주년

# 奉

# 祝

불교부산방송 개국2주년을 맞아 400만 부산·경남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교부산방송 임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부처님 법음을 흥포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불국정토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기2541년 2월 1일

불교부산방송 임직원일동 합장

불교부산방송 프로그램 후원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은행계좌:국민은행 129-01-0011-308 ●예금주:불교부산방송 ●문의전화:(051)644-5114
- 은행 온라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불교부산방송으로 확인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FM 89.9 MHz

### 생활속의 불교 ①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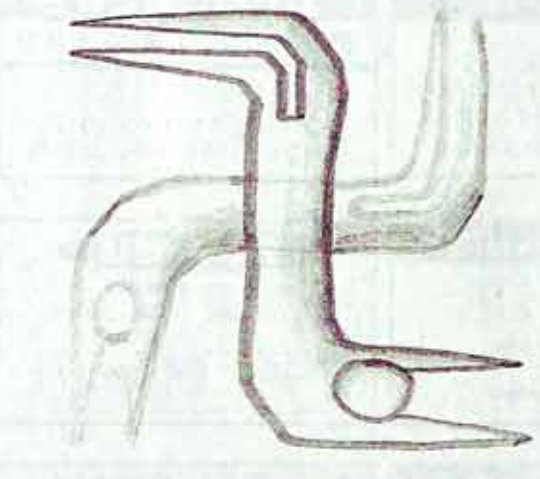
##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배경을 가진 사람

“먼저 우리는 우리 속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힘, 불성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정원사가 꽃을 가꾸듯이 불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불성을 믿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이 식물이 계절에 따라 피었다 저도 이듬해 다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것을 알지만 자신들에게 그와같은 불성이 있다는 것은 믿고 있다. 아니, 믿지를 않는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일단 몸을 바꾸게 되면 과거의 기억을 까마득하게 잊고 말기 때문이다.  
민약에 우리가 여러번의 생을 거쳐 지금 이 순간 진화의 좋은 기회를 갖고 있음을 살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나무가 이듬해에 다시 열매 맺을 힘을 갖고 있음을 믿듯이 우리 속에 부처 될 힘이 있음을 믿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화의 원동력, 그 불성을 믿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든 또는 성별이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 성품을 지녔다. 이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역대 조사가 누누히 역설한 것이다.

그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누구나 부처될 근본 성품을 통해서 하나의 영주처럼 서로 헤어져 있다. 뿐만아니라 역대 조사는 물론 나이가 부처님과도 한 줄로 꿰어져 있다. 따라서 역대 조사나 부처님과 나는 한 동아리, 한 통속, 한 께꿘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않는다. 세속의 배경이나 연줄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이지만 부처님과 내가 한 통속이라는 사실을 좀체 믿으려 하지 않는다.

세속의 모든 삶은 믿음이라는 기초위에 세워진 건축물과 같다. 삶의 한 순간, 한 장면이라도 어떤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것은 없다. 그 믿음의 대상이 힘이든 정이든, 또는 법, 계약, 약속이든 전통·관행·제도이든 간에 일체의 행위는다 믿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한 순간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  
가령 내거리의 신호등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가령 화제의 기능과 가치를 못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병원에 가서 의술을 못 믿고 약의 효능을 불신한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단 한 끼니의 식사라도 거기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믿음, 요리사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단 십리 길을 가도 거기엔 자동차의 성능에 대한 믿음, 차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그런 믿음이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구매할 믿음 운운하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굳어진 것이기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온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주 듣고 배우면 서도 그 가르침을 저 신호등만큼 믿지 못하고 게 요리사만큼도 믿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을 불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지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런 학생은 이미 학생일 수 없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불제자일 수가 없다.  
불제자라면 학생들이 그렇게 하듯이 부

처님을 '마라' 배우고 부처님 '치림' 배우고 부처님 '같이' 배워야 한다. 그게 바른 믿음인 것이다.  
그런데 세속의 삶에선 이일 제일 골짜기 밎다기도 부처님 가르침에 이르려면 왜 신심이 떨어지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랑분별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가르침은 게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육근을 굴러서 이치로 알아 낼 수가 없다. 따라서 믿는다는 것은 조건이 붙지 않는, 이치로 분별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어린 아이가 무조건하고 부모를 믿는 것처럼 나의 뜻은 버리고 부처님의 뜻으로 사는, 그것도 일체를 맡기는 그런 믿음이야 한다.  
거기엔 성공이니 실패니 하는 따위의 사랑분별이 없다. 믿음의 결과가 어떻느냐고 묻는다면 그런 무조건이 아니다.  
시냇물로 '백 중의 백' 부처님을 믿는데 무슨 조건이나 결과가 필요하라.

합 찬 : 한아름식당